

# \*\*감성적 접근에 의한 구겐하임 뮤지엄의 공간구성과 조형특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 라이트와 게리 작품 비교를 중심으로 -

A Basic Study on the Space Organization and Forming Characteristics of the Guggenheim Museums based on Emotional Approach

- Focused on Frank L. Wright & Frank O. Gehry's Works -

서수경\* / Suh, Swoo-Kyung

## Abstract

Today, people are bombarded with information, high-technology and multimedia. With that in mind, museum can no longer attract visitor with traditional concept, so it must find some solution or stimulation to attract their attention back. New museum is becoming a experimental space for new culture, new education, and most of all a place to fulfill one's satisfaction of life.

Over the past centuries, Guggenheim Foundation has done a great job in providing place for art and place to get emotional stimulation. Out of all of their museums, Frank L. Wright's Solomon R. Guggenheim in New York and Frank O. Gehry's Guggenheim Museum in Bilbao had most unique character yet share similar feature to be recognized as the architectural landmark of the 20th & 21st century.

Although there are close to 50 years of gap between two museums, their unique, attractive, site-specific, emotional value comes from the two most innovative architect of the past and present century. For Wright the Guggenheim was his last project but it had one of the greatest impact on his career and for Gehry the museum gave him confidence that anything is possible.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spatial organization as well as the architectural formation of both museum to compare and analyze. The goal of the research is to give fundamental data which will reveal emotional elements as well as concepts from each work. The content of this research will mainly focused on their architectural philosophy and it will reveal their concept on human emotion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organization. The result of the study will be a valuable reference for people designing art & cultural facilities in the future.

키워드 : 감성, 구겐하임, 조형특성,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프랭크 게리

## 1. 서론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서구의 많은 도시들은 21 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며 그 도시의 문화 활성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해 새로운 뮤지엄 콤플렉스(Museum Complex) 즉, 대단위의 문화단지를 조성하고, 보다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획기적인 뮤지엄을 건축하여 개관하고 있다.

정보와 다중매체 속에서 허덕이는 현대인들에게 뮤지엄은 이제 단지 오래된 유물이나 작품을 단순히 보존 하고 전시하는 기능을 떠나,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접하고, 살아 있는 체험을 하며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 변화되고 있다. 뮤지엄에 전시된 작품들은 우리의 감각에 직접 호소하면서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넘어서 아득한 옛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sup>1)</sup>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세기에 걸쳐 현대 예술 문화를 이끄는 기수 역할을 해온 구겐하임 문화재단은 뉴욕, 베니스, 베를린, 라스베가스에 획기적인 개념의 뮤지엄을 지속적으로 계획하

\* 정회원,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조교수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3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전진성, 박물관의 탄생, 살림, p.83

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빌바오(Bilbao)시의 네르비온(Nervion) 강변 재개발계획에 의해 실행된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이 오늘날 관광 0순위가 된 좋은 사례<sup>2)</sup>가 됨은 물론 현지 도시민들이나 관광객의 감성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좋은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인 문화 보급과 만인의 공유를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뮤지엄의 분관(branch)을 설치하고, 분리운영전략을 취하며, 문화네트워크(culture network)화를 추진하고 있는 구겐하임 뮤지엄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이들 구겐하임 뮤지엄들 중에서 20세기 건축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작품 즉,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1867-1959 : 이하 라이트로 표기)가 설계한 뉴욕의 솔로몬 R. 구겐하임 뮤지엄(Solomon R. Guggenheim)과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 1929- : 이하 게리로 표기)가 설계한 빌바오의 구겐하임 뮤지엄(Guggenheim Museum, Bilbao)을 중심으로 공간구성과 조형특성을 비교 분석하며 그들 작품 속에 표현된 감성적 접근에 대하여 공통점과 상이점을 찾아보려는데 목적과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를 감성적 접근에 의해 분석하고자하는 의도는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감성공학(Kansei Engineering)<sup>3)</sup>이 주로 인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물량 또는 계량적인 표현으로 접근하여 얻어진 결과였다면 이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성과 그것을 담아내는 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심리적 측면을 만족시키게 되는 감성표현의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에<sup>4)</sup> 감성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인테리어 디자인이 감성디자인을 통하여 ①고부가가치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②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환해야 하며, ③문화정보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내디자인의 영역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고, ④물질중심에서 인간 가치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휴머니즘(humanism)을 통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중요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5)</sup>

본 연구내용은 주로 두 작가의 감성적 건축이념과 공간구성 그리고 조형특성 분석을 범위로 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계획되는 새로운 뮤지엄 건축이 좀 더 인간의 감성을 충족시키면서 예술문화를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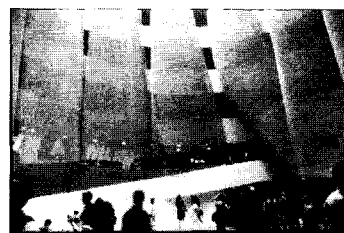
## 2. 두 작가의 감성적 건축이념

분석대상작가와 작품을 라이트의 솔로몬 R.구겐하임 뮤지엄과 게리의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으로 국한하는 이유는 건축 관련 문헌은 물론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도시에 현존하는 구겐하임 뮤지엄들 중에서 건축적으로 분석의 가치가 가장 높고, 두 작품 모두 특정대지(site specific)의 조건을 가지고 건축되어진 작품이었으며, 특히 뉴욕의 구겐하임은 최초의 구겐하임 뮤지엄 건축으로 건축거장인 라이트의 유작인 동시에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뉴욕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 왔고, 빌바오의 구겐하임 뮤지엄은 라이트이후 반세기가 지난 때에 20세기와 21세기 활동중인 게리에 의해 또다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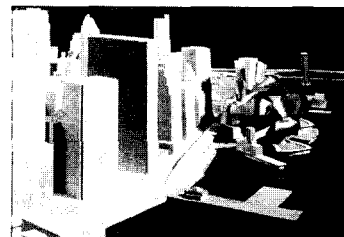
지난 2001년 여름, 라이트가 설계한 솔로몬 R.구겐하임 뮤지엄에서 개관된 게리의 특별 건축전시회에서 빌바오의 구겐하임과 맨해튼 동쪽에 세워질 새로운 구겐하임 계획안이 포함되어 더욱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되었다. 특히 라이트의 솔로몬 R.구겐하임 뮤지엄 중심부의 메이저 스페이스(major space)를 게리가 즐겨 써온 철망(wire mesh)으로 커튼처럼 둘러싸 마치 두 작가의 만남이 하나의 건축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며 보는 이들의 감성에 영향을 준 작품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그림 1a><그림 1b><그림 1c>



<그림 1a> 라이트의 구겐하임 뮤지엄. 메이저 스페이스를 게리의 건축을 위한 연출로 철망으로 감성적 대 공간을 변환시킨 장면



<그림 1b> 와이어 메쉬(Wire mesh)가 커튼을 두른 것처럼 자유로운 형태로 전시 되어있다.



<그림 1c> 게리 설계의 맨해튼의 구겐하임(Manhattan Guggenheim) 계획안

### 2.1. 라이트의 감성적 건축이념

라이트의 건축이념은 1893년 오크 파크(Oak Park)에서 독자적인 작업에서 시작되었는데 자연관, 유기성, 중서부 프레이리(Midwestern Prairie), 모더니즘을 기초로 미국적 디자인 탐구

2)서상우, 랜드마크 이야기, 문화도시·문화복지, Vol.141, pp.56-59

3)1986년 일본 마쓰다자동차의 야마모토 회장에 의해 처음 제안된 “감성공학”은 “상황 인식에 대해 밸런스 처리된 감정적 반응”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학문.

4)김미지자의 글 ‘디자인과 감성공학’, Poar 2004년 5월호 pp.7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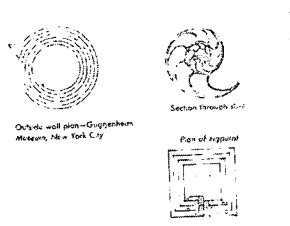
5)오영근, Neo Humanism으로의 감성디자인, 인테리어 1999년 6월호 p.103

에 초점을 두었다.<sup>6)</sup>

일찍이 유기적 디자인의 개발과 활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그에게 있어 유기적 디자인은 유럽의 유포아적인 기하학적 모더니즘에서 한층 더 발전되어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형태 언어를 과감히 도입, 인간적 디자인, 감성적 디자인으로 나아가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sup>7)</sup> 또한 그는 기하학을 이용한 건축형태를 만들어 내는데 뛰어난 감성을 가지고 있었다.<sup>8)</sup> 그는 격자에 의해 이루어진 사각형의 틀 안에서 자연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도형 원리를 사용하고, 인간의 감성과 호흡하는 자연소재의 건축 재료와 시공방법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그림 2a><그림 2b>



<그림 2a> 구겐하임의 모티브가 된 달팽이가 연속성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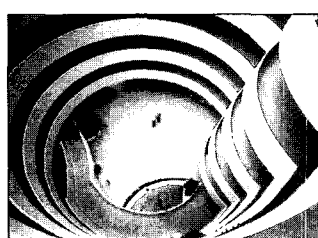


<그림 2b> 연속성을 의미하는 달팽이의 단면과 지구라트(Ziggurat)

그의 작품에 나타난 감성적 표현은 자연의 질서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물리적인 형태와 자연과의 상관성이 인간의 정신 상태를 상승시킨다고 믿었다.<그림 3a><그림 3b>



<그림 3a> 연속성을 나타낸 구겐하임 뮤지엄 외부조형



<그림 3b> 메이저 스페이스로 라이트의 유기적 건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공간 중의 하나

라이트의 감성적 건축이념을 이해하기 위한 원리들은 ①자연관 ②유기적 건축 ③토탈디자인 개념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다.

#### (1) 자연관 (Principle of Nature)

라이트는 성장기부터 자연에 대한 섭리를 터득하였고 자연은 그에게 많은 영감을 주어 자연에서 유추된 형태들이 그의 디자인에 기본이 되었다. 그는 건축의 본질적인 원리를 추구하면서 자연이란 대명제 속에서 디자인을 보았고, 자연과 건축의 통일 원리로 유기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는 강한 수평선을

6)서수경, FLLW작품에 나타난 토탈디자인 개념,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5호, 2000.12

7)오영근, 공간디자인에서의 감성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43호, 20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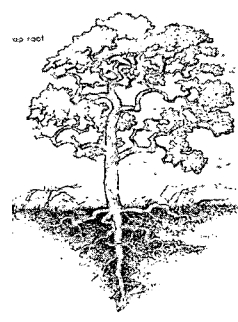
8)닐 파킨, 우리세기의 70가지 경이로운 건축, 오늘의 책, p.143

강조하였는데 이는 건축이 자연과 밀착되는 동시에 자연의 일부로서 제시되고, 장식적인 요소로서 자연을 돋보이게 하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었다.

결론적으로 자연에 대한 감성이 라이트의 작품을 다소 대담하게 만들었고, 자연은 그를 관대하고 화려한 것을 지향하도록 일러 주었으며, 자연의 섭리와 자연을 사랑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자연에서 얻어진 감성적 모티브로 디자인하게 되었고, 자연을 내포한 작품을 세상에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솔로몬 R. 구겐하임 뮤지엄의 기본적인건축 구조나 형태 역시 자연에서 유추된 것이다.

#### (2) 유기적 건축(Organic Architecture)

유기적이란 의미는 마치 꽃과 나무처럼 각 부분은 전체와 연관이 있듯이 각 공간의 연속성과 내·외부공간의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건축 뿐 만아니라 건축과 관계된 모든 집기나 장식품 그리고 정원의 조경까지 총체적으로 디자인 되었다. 솔로몬 R.구겐하임 뮤지엄의 경우 연속된 전시공간을 유기적으로 창출해낸 대표적인 감성적 공간 구성이 된 것이다.<그림 4>



<그림 4> 자연적이며 생물적인 것으로 유기적 연관성으로 연결되어 각 부분이 서로 분리 될 수 없는 사상이나 사물의 종합적인 파악을 의미하는 라이트의 나무그림

#### (3) 토탈디자인 개념(The Concept of Total Design)

그의 감성적 이념은 자연과 연관된 유기적 조형을 바탕으로 자연에서 유추된 형태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통합작업, 즉 토탈디자인 개념에서 알 수 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모든 가구, 문양, 조명기구, 직물, 악세사리 등은 그의 총체적인 감수성이 어떻게 디자인에 반영되었는지 감지할 수 있게 한다. 그는 작품마다 각기 다른 모티브를 소개하지만, 언제나 그의 디자인 원칙과 통일된 디자인개념을 가미하여야 한다고 했다. 솔로몬 R.구겐하임의 경우 원을 모티브로 한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토탈디자인 개념에 의한 내·외부 조형을 통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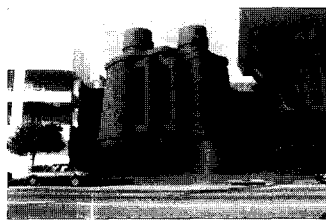
## 2.2. 게리의 감성적 건축이념

프랭크 게리는 빌바오의 구겐하임 뮤지엄 설계로 20세기말 세계건축의 랜드마크가 될 작품을 남겼다.

그의 작업은 조각가와 같은 감성으로 개념적인 모형제작을 제작함으로 시작된다. 그는 건축가인 동시에 타 장르의 예술과의 경계를 넘어서 예술적 감성과 성과에 감동하고 반응하여 그 영향을 되돌려 주려는 시도를 하는 작가이다. 그런 점에서 건축가 게리는 다른 작가와 차별화 되고 있다.

게리의 감성적 건축이념은 이미 1970년대 초부터 합리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실험적인 경향을 내포하는 건축으로 발전되었다. 그의 프로젝트는 많은 예술가들과 협동하는 가운데 건축디

자인을 조각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그림 5><그림 6>



<그림 5> 미국 캘리포니아의 베니스라는 도시의 디자인(Chiat Day Office)빌딩 입구를 올덴버그(Claes Oldenburg)의 작품 망원경으로 적용한 디자인 사례



<그림 6> 바젤(Basel)근교에 위치한 거리 설계의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Vitra Design Museum)과 올덴버그의 작품 'Tool'이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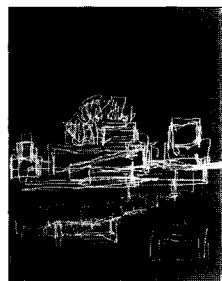
그 후에 자신의 새로운 공간창출, 자연광의 유입방법, 새로운 재료의 사용 등 새로운 감성으로 자신의 건축관을 창출해 낸 것이다.

거리의 감성적 건축이념은 내외부공간의 유기성을 지닌 점에서는 라이트의 이념을 계승한 건축가라고 볼 수 있으나 그의 건축은 해체와 재조합을 통한 추상 입체파와 다 차원성, 우연 발생적 즉흥성, 변형, 천진함과 익살성, 탈장르, 다양한 재질의 실험을 중시한 점에서 라이트와 구분된다.<sup>9)</sup>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감성적 건축이념은 시적(詩的)이고, 실용적이며, 역사적이길 바라고 있다. 그는 그러한 목적을 빌바오의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성취하였다<그림 7a><그림 7b>.



<그림 7a> 네르비온 강변에서 본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의 전경



<그림 7b>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 스케치

### 3. 감성적 접근에 의한 공간구성 및 조형특성 비교 분석

감성이란 인간의 인식능력의 하나로 인간 생활의 기본 영역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 미적(美的) 인식측면에서의 감성은 자신의 순수한 모습을 나타냄으로서 인간적 생의 상징적 징표(徵表)가 된다.<sup>10)</sup>

그런 관점에서 두 작품의 감성적 접근에 의한 공간구성의

특성과 조형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3.1. 공간구성 특성 분석

분석항목은 건립개요, 공간의 연속성이나 다양성, 동선체계, 채광형식 등이 공간구성특성을 나타내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구분하여 분석한다.

(1) 솔로몬 R. 구겐하임 뮤지엄, 뉴욕, 1943-59

• 건립개요 : 솔로몬 R. 구겐하임 뮤지엄은 시기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있는 뮤지엄 건축이 요구 되던 시점에 샌프란시스코의 모리스 상회(Morris Gift Shop, 1950)와 동일한 디자인 개념으로 설계된 개인 화랑으로 건축물 자체가 걸작품이었다. 그 후 건축, 회화, 조각, 판화를 포함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세계적인 작품을 수장하여 전시하기 위한 현대 미술관의 성격으로 발전되었다. 후원자인 구겐하임의 뮤지엄 재단이 운영되고 있어서 현재는 전 세계의 수많은 분관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라이트는 말년에 전폭적인 후원자인 솔로몬 R. 구겐하임을 만나 20세기를 대표하는 뮤지엄 건축을 만들어 내게 된다. 허가 부서인 뉴욕시나 건축주의 거부반응에도 불구하고 16년간의 투쟁 끝에 자신의 감성적 의도를 표현한 최후 작품이다. 그 후 1985년 확장 계획이 제기되어 오다가 전문가와 시민 애호가들의 오랜 논쟁 때문에 보류 되었다. 완공된 이후 현대 건축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오랫동안 명성을 날리고 있으며 1992년 증축부분이 완성되어 대형작품의 전시가 가능해 졌고, 지원 시설도 확장 되었다.

• 공간의 연속성 : 이 작품은 라이트의 유기적 원리를 대표하는 건축으로 상승하는 내부공간에 경사로와 원형이 조화를 이루어 관람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유기적인 작품이다. 철근콘크리트의 재료에서 오는 가능성을 실험하여 나선형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전 세계 미술 애호와 건축가들의 관심사가 된 작품이다. 건물의 입구와 현관홀을 의도적으로 낮게 처리함으로써 그 다음의 닥치는 대공간(major space)이 방문객을 감동시키고 있는데, 6개 층이 개방된 둥근 메이저 스페이스는 아트리움을 통해 하늘로 열린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자연채광을 받아 드림으로서 밝은 내부는 방문객을 편안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메이저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장엄한 전시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전시공간이 연속된 무한정 공간(free space)으로 전체 공간을 파악하면서 부분을 감상할 수 있는 유기적 건축의 원리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개념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획기적인 착상이었다. 특히 전 층에 일정한 분위기로 연속되다가 1층과 2층 사이에 열린 공간을 둠으로써 공간 안에 특별한 변화를 주었으며 접지인 1층에 타원형의 작은 연못을 두어 종착점을 알리는 동시에 자연이 살아 숨 쉬는

9)김홍남,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스페인, 현대미술 86호, 1997 겨울호

10)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1권, 동아출판사, p.417



<그림 8a> 대공간을 중심으로 연속으로 상승하는 나선형 전시 공간이 램프로 처리되어 감성적 메이저 스페이스를 구성



<그림 8b> 램프와 서클이 조화를 이루는 감성적 공간에 자연스러운 동선 체계가 획기적이다.

수변공간을 두는 수법도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이 되었다. <그림 8a>, <그림 8b>, <그림 9>



<그림 9> 연속된 공간에서 종착지를 인지케 하는 1층의 연못

진행된 방향에서 360°회전하게 되어 동선의 변화를 준다. 이는 종착지에 도달하였음을 자연스럽게 인지해 준 고차원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채광형식 : 중앙의 메이저 스페이스에 천창을 둔 수법은 이미 거의 반세기 전에 라이트가 버팔로에 있는 라킨우편주문회사(Larkin Company, 1904)를 설계할 때 이미 선보였던 방식을 재활용한 것이다. 중앙의 메이저 스페이스를 통하여 전관을 밝히는 천창이 위치하고, 램프를 따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접광선이 유입되도록 설계 되었다. 그러나 측창의 채광은 전시물을 감상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어 증개축하면서 차단시켰다.

## (2) 구겐하임 뮤지엄, 빌바오, 1991-97

●건립개요 : 빌바오는 옛 조선소가 많아 바스크(Basque)지방에서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지만 현재는 인구 60만 명으로 보잘 것 없는 퇴색도시가 되었다. 도시 활성화 프로그램에 의해 네르비온(Nervion)강변 재개발에 상상을 초월한 구겐하임 뮤지엄 분관이 들어섬으로서 뉴욕과 빌바오가 연결되는 '대서양축'이 생긴 셈이다. 이 프로젝트는 1991년 빌바오의 재건 프로그램을 구겐하임 재단이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세 사람의 건축가가 지명된 중 게리의 작품이 만장일치로 선택되었는데 반세기 전에 라이트가 설계한 뉴욕의 구겐하임 뮤지엄이 20세기 건축의 랜드마크가 되었듯이 컴퓨터 테크놀로지에 의한 조각품과도 같은 게리의 안은 다시 한 번 20세기 건축사에 길이 남을 랜드마크가 되었다. 여기에 부가하여 이 뮤지엄은 개관 즉시 빌바오 도시의 활성화와 문화관광 메이커로서 자리 잡음은 물론이고 라이트의 건축을 능가하는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이

다. 이로써 쇠락해 가던 빌바오시가 세계 문화관광 0순위에 오르게 되고, 세계 많은 도시들을 자극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공간의 다양성 : 지금까지의 구겐하임 뮤지엄 중 이 같이 쾌적하고 환희에 넘쳐나는 공간은 없었다. 사람의 심장부와도 같이 중심부 역할을 하는 메이저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둘레에는 전시공간들이 동심원의 날개처럼 사방으로 뻗어 있다. 상층부까지 개방된 메이저 스페이스는 상당 내부와도 같이 측창으로부터 자연광이 유입된다. 기획전시동(길이 130m, 폭 80m, 높이 10~30m)은 상설전시동과 분리되어 어떤 전시도 가능토록 매우 큰 공간이다. 모든 공간구성은 자유분방하며, 특히 특정작가를 위한 전시공간은 방의 형태와 크기가 모두 다르며, 채광 위치도 다르다.

그러나 시대적 순서로 보여주는 상설전시공간은 고전풍의 구형공간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내부공간과 설치작품들이 은밀하게 일치되어 초기 계획단계부터 배려된 공간연출은 매우 중요하게 느끼게 한다. 즉, 현대건축의 위대한 힘을 빌려 감성적인 새롭고 다양한 공간창출을 하였다는 점에서 라이트의 공간과 구분된다. <그림 10a><그림 10b><그림 11>



<그림 10a> 빌바오의 구겐하임 뮤지엄 메이저 스페이스



<그림 10b>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 진입부



<그림 11> 빌바오의 구겐하임 뮤지엄 개관 당시 내부 공간으로 전시물과 그 공간이 일치된 감성적 연출을 보인다.

●동선체계 : 심장부와 같은 메이저 스페이스를 통해 수직 연결된 체계로 일정한 순로(course)없이 자유 선택적이라는 점에서 라이트의 구겐하임 뮤지엄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시대 순서로 보여주는 상설전시공간은 고전형식의 구형공간이 연속되어 강제적 동선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

●채광형식 : 심장부와 같은 메이저 스페이스는 측창을 통하여 자연광이 유입되어 마치 상당 내부와 같이 장엄하다. 또한 특정작가를 위한 전시공간은 방의 형태에 따라 천창의 위치가 각기 다르며, 구형의 상설전시공간은 각 방마다 우물처럼 상하층이 채광구가 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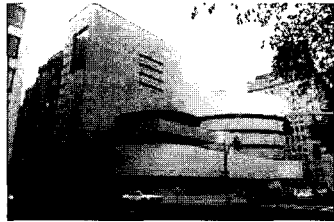
## 32. 조형특성 분석

분석항목은 시대적 배경과 주변성, 형태의 유추, 층의 구분,

채광을 위한 건축적 해결 등이 조형특성을 나타내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구분하여 분석한다.

#### (1) 솔로몬 R. 구겐하임 뮤지엄, 뉴욕

• 시대적 배경과 주변성 : 이 구겐하임 뮤지엄이 계획될 시기는 미국의 뮤지엄들이 신설되거나 증축이 성행되던 때이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던 때이다.<sup>11)</sup> 맨해튼 주변 건물이 일률적으로 네모난 상자형 건축인데 반해 이 원추형 건축은 탈 도시적이고도 반역사적 형태로 독특한 건축조형을 나타내고 있다. 즉, 뉴욕의 도시경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나선형 원통 건축을 구현함으로써 주변 건축과 대조를 이룬다. 1994년 전시공간의 확장과 지원시설의 수용 필요성 때문에 오랜 논란이 되었던 증개축이 이루어져 새롭게 오픈되었다.



<그림 12> 뉴욕의 솔로몬 R. 구겐하임 뮤지엄 전경

<그림 12>

• 형태의 유추 : 라이트는 말년에 원과 나선형에 대한 매력을 나타냈는데<sup>12)</sup> 그 중 이 구겐하임 뮤지엄은 그의 감성적인 유기적 건축이념을 완결시킨 작품으로 자연에서 유추된 '달팽이'의 형상이 건축화된 것이고, 지구라트(ziggurat)의 연속적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따라서 기하학을 이용한 원형의 연속공간이 감성적인 독특한 형태를 낳게 된 것이다. 증개축으로 인해 본래의 모습이 손상되거나 기존의 공간 개념이 훼손되지는 않았으나 기존 건축자체가 완결된 조형미를 가지고 있었고, 위대한 건축가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미술 애호가들은 증축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수가 없었던 것이다.

• 층의 구분 : 압도적 매스(mass)때문에 보통의 건축처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램프(ramp)를 따라 외벽에 층창을 설치한 것이 육중한 외벽을 가르면서 의장적으로는 수평을 강조하면서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건물의 층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개리의 구겐하임 뮤지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 채광을 위한 건축적 해결 : 자연채광 도입을 위한 건축적 수단은 뮤지엄에서 동선해결과 함께 중요하다. 이 작품은 천창과 층창으로 이루어졌는데 천창은 중앙의 메이저 스페이스를 통해 전관을 밝힐 뿐 아니라 내부공간을 외부로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법은 최근까지도 많은 뮤지엄 설계에 도입되고 있다. 또한 층창은 외부의 의장적인 역할을 하면서 간접채광을 위한 건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 (2) 구겐하임 뮤지엄, 빌바오

• 시대적 배경과 주변성 : 이 뮤지엄은 도시의 재생을 위해 마련한 미화1억 달러의 운영자금으로 구겐하임 재단과의 협약으로 건립 프로그래밍과 주요 예술품의 수집 그리고 큐레이터

의 활동까지도 제안하는 조건에서 건립이 시작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프로젝트로 개관하자마자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몰려 도시의 활력을 가져오게 된 좋은 사례가 되었다. 또한 기존 도시의 전통적 건축조형과는 달리 역설적이고도 감성적인 조형이 도시의 활력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는 반세기 전에 라이트의 구겐하임 뮤지엄이 맨해튼의 네모상자와도 같은 주변 건축 속에서 새로운 조형으로 건립되었듯이 이 뮤지엄도 팝아트(Pop art)처럼 특수조형으로 구현되었다. 이 작품은 빌바오시가 새롭게 개발하려는 네르비온 강변에 위치하며, 도시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한 이 뮤지엄은 20세기 말 눈부신 기술적 성과와 컴퓨터에 의한 테크놀로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항공우주산업을 건축에 적용하여 경제적으로 생산하여 후기 산업사회에 걸 맞는 기술 중심의 건축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sup>13)</sup><그림 13>



<그림 13> 빌바오의 구겐하임 뮤지엄 배면

• 형태의 유추 : 이 작품의 조형은 개리가 즐겨 표방해온 '물고기'와 흡사하며, 거대한 '배'가 강변에 떠 있는 듯 신비하고 환상적이다. 또한 강변 쪽에서 보면 거대한 바위와 같은 조각품이 광채를 발휘하면서 물에 반사 효과를 노린 환희의 건축이다. 전체 건물의 조형은 세 가지 형태와 재료로 조합되었는데 신소재인 티타늄(titanium)으로 뒤덮인 곡면 지붕은 전시공간을 덮은 것으로 숙련된 기술자들이 직접 손으로 시공한 것이다. 그리고 유리로 개방된 부분은 방문객들이 움직이는 공적공간이고, 전통적인 스페인산 라임스톤(Spanish Limestone)을 사용한 수직 벽들은 지원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 층의 구분 : 소규모이긴 하지만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Vitra Design Museum, 1987-89)에서도 그러했듯이 외부의 지붕 조형이 곡면과 직선이 조합된 하나의 매스(mass)이기 때문에 층의 구분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 채광을 위한 건축적 해결 : 일반적인 뮤지엄의 채광형식은 대부분 외부에 노출되어 채광창임을 쉽게 인지되나 이 작품에서는 자연광을 위한 장치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건축구조 속에 묻혀 해결하는 특성을 가진다.

### 3.3. 분석종합

분석대상이 된 두 작품의 특성을 종합비교하면 <표 1> <표 2>와 같다.

11) 서상우, 세계의 박물관·미술관, 기문당, 1995, p.91

12) 앞의 책, 70가지 경이로운 건축, p.143

13) 네일 팔킨, 경이로운 70가지 건축, p.166

#### 4. 결론

뮤지엄은 소장품(collection)과 방문객(visitor) 그리고 그것을 담는 공간(space)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공간은 컬렉션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설계되고 방문객이 쾌적한 공간에서 만족스럽게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형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감성적 특성을 가져야 하겠다.

문화보급과 세계인의 예술 공유를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분관을 설치하고, 문화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있는 구겐하임 뮤지엄 중 20세기 세계건축의 랜드마크 역할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었던 두 작품의 특성을 감성적 접근에 의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는 또 다른 구겐하임 뮤지엄 건축이 또 다시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때 비교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1) 라이트나 게리 모두 내·외부공간의 유기성을 기본으로 한 공통된 감성을 가진 점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게리는 다양한 재질의 실험을 중시한 점에서 라이트와는 구분된다.

2) 라이트가 음악적 감성을 바탕으로 건축을 창출하고 구조적 해결을 자연에서 유추 시켰다면, 게리는 조각가의 감성으로 타 장르와의 예술적 경계를 넘어서 예술적 감성으로 현대건축의 위대한 힘을 구현한 점에서 유사하다고 보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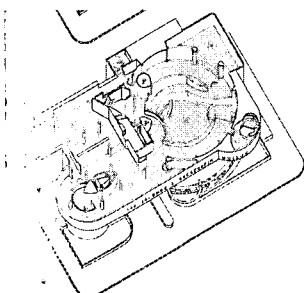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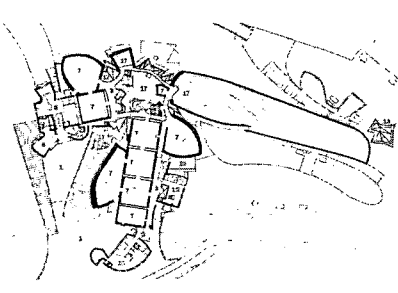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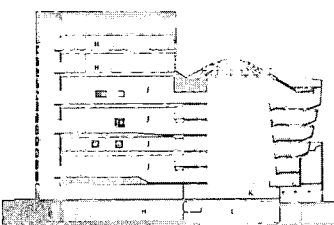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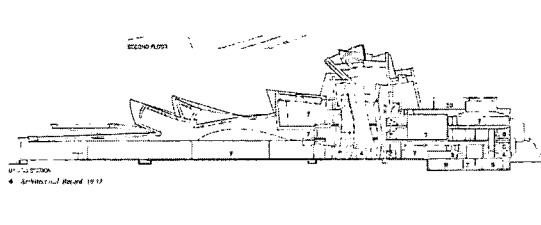
3) 두 작가 모두가 유기적 건축을 통해 공간의 연계를 중시하고 인간의 심장부와 같은 중심적 역할을 하는 메이저 스페이스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시공간을 구성한 점은 동일하다.

4) 두 작품 모두 주변건축과의 차별화를 위해 획기적인 조형 연출을 시도하고, 도시의 활력을 주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본다.



5) 두 작품 모두 관념적인 층수의 구분을 없앴 점은 큰 매스의 감성적 조형성을 나타내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자연채광유입을 위한 개구부의 건축적 해결이 돋보인다.

6) 감성디자인 측면에서 자신들의 장엄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냄으로서 20세기의 랜드마크적 뮤지엄 건축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분석되었다.

<표 1> 두 작품의 공간 구성특성 비교

분석항목	라이트의 구겐하임 뮤지엄	게리의 구겐하임 뮤지엄
평면도		
단면도		
공간의 연속성 또는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이저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원형 램프가 둘러싸인 중앙 집중형</li> <li>· 상설과 기획전시공간이 혼합된 구성</li> <li>· 라이트의 유기적 감성을 나타낸 대표작으로 나선형 연속공간구성</li> <li>· 입구와 현관홀을 의도적으로 나추고, 그곳을 지나면 극적인 메이저 스페이스에 도달하는 공간연출</li> <li>· 따라서 전체 공간구성은 연속된 무한정 공간으로 전체와 부분이 공존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이저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날개가 뻗은 집중형</li> <li>· 상설과 기획이 분리되었으며, 특히 기획전시공간은 어떤 전시도 가능하도록 대단위로 처리</li> <li>· 특정작가를 위한 자유분방한 전시공간과 고정형 구형 전시공간이 혼합된 구성</li> <li>· 진입부나 메이저 스페이스가 모두 개방적이다. 특히 메이저 스페이스는 사람의 심장부에 비유되어 라이트의 작품과도 유사한 개념이다.</li> <li>· 따라서 전체공간구성은 반개방적이지만 자유분방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다.</li> </ul>
동선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전시공간이 층의 구분이 없어 연속적이기 때문에 동선의 교차 없이 전 층이 일방적으로 이동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공간이 수직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동선체계로 선택적 관람이 가능하다.</li> </ul>
채광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메이저 스페이스 상부의 천창으로 도입되는 자연광이 전관을 밝히고, 램프를 따라 외벽에 축창이 설치되어 있으나 개조하면서 폐쇄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입부와 메이저 스페이스는 자연채광이 축창으로부터 도입되며, 전시공간은 천창을 통한 채광이 방마다 다른 분위기를 조성함</li> </ul>

<표 2> 두 작품의 조형특성 비교

분석항목	라이트의 구겐하임 뮤지엄	개리의 구겐하임 뮤지엄
전 경		
주변성에 따른 조형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건물이 대부분 네모난 상자형으로 둘러싸인데 비해 이 건축은 탈도시형이고 도 반역사적 조형성을 나타냄.</li> <li>· 증개축이 어려운 완결형으로 장엄한 조형미가 20세기 랜드마크 역할을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도시의 전통적 건축과는 대비되는 역설적인 조형성으로 도시의 활성화를 도모 하는데 다대한 역할을 함</li> <li>· 증개축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완결형으로 하나의 조각과도 같다. 라이트의 작품 이후 또 하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됨</li> </ul>
형태유추	· 자연에서 유추된 유기적 형태로 '달팽이'나 '자구라트(Ziggurat)'의 연속된 개념 적용	· '물고기'나 '배'를 연상케 하는 일체된 모습
층의 구분	· 층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으나 내부의 램프(ramp)를 따라 생긴 측벽의 채광창이 층의 구분을 암시할 뿐 관념적 층의 구분이 없는 매스 개념	· 층의 구분이 전연 감지되지 않아 외관에서는 전체가 하나의 조각품과도 같이 일체로 보임
채광을 위한 건축적 해결	· 메이저 스페이스 상부의 천창은 외부에서 인지되지 않으나 측창은 외부 의장적 역할을 한 건축적 해결의 돋보임	· 채광창들이 지붕 구조 속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어서 건축적 해결이 완벽함.

## 참고문헌

1. 서상우, 세계의 박물관·미술관, 기문당, 1995
2. 서수경,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5호, 2000. 12
3. 김홍남, 현대미술 86호, 현대미술관회, 1997 겨울호
4. 오영근, Interiors, 가인 디자인, 1999. 6
5. 오영근,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43호, 2004. 4
6. 김미지자, 디자인과 감성공학, Poar 04:05.
7. 전진성, 박물관의 탄생, 살림출판, 2004
8. 동아원색 세계대백과사전 1권, 동아 출판사
9. Neil Parkyn, The Seventy Architectural Wonders of Our World, Thames & Hudson, 2002
10. Christian W. Thomsen, Sensuous Architecture, Prestel, 1998

<접수 : 2004. 8. 31>